

# 익산다이로움 업그레이드

### 9월 1일부터 선할인 후캐시백 방식 전환 50만원 기점 캐시백 · 소비촉진지원금 차등 지급

익산시가 지역화폐 다이로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해 최대 규모 혜택은 유지하면서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익산다이로움 고도화를 위해 충전방식과 인센티브 비율 등을 변경한다.

우선 익산다이로움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충전 시 10% 추가 적립에서 충전금을 사용할 때마다 즉시 적립되는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다.

고소득 시민에 대한 소비지원 풀림을 막고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50만원 구간을 기점으로 캐시백 인센티브 비율도 변경된다. 자체 분석 결과 전체 사용자의 63%가 익산다이로움 50만원 이하 소비층으로 파악됐기 때문



이다

50만원 충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10%의 캐시백(50만원이,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까지 5%의 캐시백(2만 5천원)이 사용될 때마다 지급된다. 즉 100만원을 충전해 사용할 경우, 50만원까지는 10%인 5만원, 50만원에서 100만원 구간은 5%인 2만5천원 총 7만5천원의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 후 다음달 지급되는 소비촉진

지원금(페이백)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촉진지원금은 이미 지난 7월부터 50만원까지 사용하면 10%,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 5%로 차등 지원 중이다.

시는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사용자가 캐시백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캐시백지갑을 만들었다. 앱에서 캐시백지갑을 활성화하면 결제 시 캐시백이 우선 차감되고 결제취소 시 다시 캐시백 지급으로 회수된다.

사용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익산다이로움 사용자들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착한페이 앱을 반드시 업데이트 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30일 00시부터 9월 1일 00시 30분까지 충전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업데이트 이후 9월 1일 00시 30분부터 충전이 재개되며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의 군산문화도시센터(센터장 박성신)는 전라북도어촌특화지원센터(센터장 고대곤)와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문화 소외지역 없는 문화도시”

### 군산시-문화도시센터-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의 군산문화도시센터(센터장 박성신)는 전라북도어촌특화지원센터(센터장 고대곤)와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박성신 군산문화도시센터장 고대곤 전라북도어촌특화지원센터장 노창식 문화예술과장이 참석해 군산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한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군산문화도시센터는 시의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3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 다양한 예비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의 어업 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촌마을 등을 대상으로 창업·

경영 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판매·유통·홍보지원 등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전라북도 지원조직이다.

이번협약으로 군산시의 양 기관은 앞으로 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군산문화도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은 도시와 농촌, 어촌이 공존하는 자원이 풍부한 도시로서 양 기관과 협력해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문화 소외지역이 없는 문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2022 군산시간여행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군산시는 22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2022 군산시간여행축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군산의 근대를 핵심으로 시간 여행을 모티브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인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다.

이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누구나 이번 자원봉사에 신청할 수 있다.

자원봉사 참여자들은 근무수칙 교육을 받은 후 구시청광장 등 월명동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축제 프로그램 및 버스 운영 지원,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방역수칙 안내 및 지도 등 방역활동을 수행한다. 참여자들은 활동별로 6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생생직업체험교실 하반기과정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생생직업 체험교실 하반기과정’을 개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가상현실전문가(9.3~4) 캘리그라피(9.17~18) △상담사(9.24~25) △수익사·사육사(10.1~2) △도시농업연구원(10.8~9) △신약개발연구원(10.15~16) △푸드스타일리스트(10.29~30) △해양생태연구원(11.5~6)과정인 진행된다.

체험교실은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와 3시 30분, 2회차씩 운영되며, 화차 당 초등학교 12명을 대상으로 수송동 맘껏광장에서 진행된다.

하반기 운영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과정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이동통신과 ☎454-416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육군부사관학교 입교식 익산 시내서 개최

### 실내체육관서 2000여명 후보생 · 가족 참석해 입교식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육군부사관학교 입교식이 익산 시내에서 이뤄져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육군부사관학교 부사관 후보생 입교식이 24일 2,000여명의 후보생 및 가족들이 참석,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육군부사관학교 후보생 입교식은 그동안 학교 소재지인 여산면에서 개최됐지만 거리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 시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익산 시내에서 실시하게 됐다.

시는 입교식의 시내 개최를 계기로

부사관 후보생 및 가족들에게 우리시 음식점 및 관광 명소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시는 부사관학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전국 각지에 거주 중인 후보생들에게 익산시 방문 시 많이 찾게 될 음식점, 숙박 정보 및 주요 관광지를 소개한 안내 책자를 발송했다. 입교식 당일엔 시 홍보를 위한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주요도로변 및 행사장 일원에 현수막 게시와 시내 설치된 전광판을 활용, 방문객 환영 분위기를 조성해

시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시 이미지를 향상 될 수 있도록 마련한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익산시지부(지부장 황호진)에게 이번 입교식 시내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친절 응대 및 환영맞이 등을 협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입교식 행사가 시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육군부사관학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부사관학교 입교식을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시내에서 개최하여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공청회 개최

익산시가 2026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민 의견 반영·수립해 지역별 사회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2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개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 의무계획으로 2023~2026년까지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추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는 제5기 익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경과보고와 4년동안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계획, 세부사업 구성 등에 대해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자료와 전문가 의견, 민선 8기 시정 방향을 토대로 크게 △익산 대도약을 위한 희망 청년 △지역사회에서 키우는 꿈과 미래 △충족한 사회안전망 △행복한 생활을 위한 포용적 돌봄 △일상에 힘이 되는 건강과 안전 등 5개 분야 35개 세부사업 계획안에 대한 발표와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 중 반영 가능한 사항은 계획에 반영 후 9월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의회보고를 거쳐 9월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 내 유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담은 이번 계획이 잘 실행되어 4년 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시민 손수 만든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 호응

시민들이 손수 생활 속에서 가꾼 공동체 정원인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이 도시 곳곳에 만들어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한 2022년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이중 우수 작품들에 대한 시상식을 19일 국민생활관에서 개최했다.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는

녹색 정원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활용도가 적은 내대지, 쓰레기 투기지역, 수목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 등 환경미화가 필요한 곳을 주민들과 함께 꽃과 나무를 심어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신동 동산동 영등 1.2동, 삼성동, 합월읍 낭산면 망성면, 삼기면 춘포면 합리면 등 11곳에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을 조성했다.

이번 시상은 완성된 정원에 대해 정원 전문가 3명의 현장평가 및 주민참여 실적 유지관리 인력 구성, 디자인 및 심미성 등을 심사가 이뤄졌다.

최우수상은 영등동 영등이름정원이며 △우수상 삼성동 삼성빛정원, 동산동 리온정원 △진려상 신동 대학로 행복관 정원 합월읍 박진 향이리 정원, 낭산면 낭산향정원 등 총 6개 정원이 선정됐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